

# 국정원감시네트워크·국정원‘프락치’공작사건대책위원회

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·사회부  
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(담당: 참여연대 이은미 감시2팀장 02-723-5302  
국가정보원 ‘프락치’ 공작사건대책위원회(담당: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
010-2881-8105)  
제 목 [보도협조] 국정원 ‘프락치’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
날 짜 2019. 9. 23. (총 2 쪽)

## 보도자료 협조

### 국정원 ‘프락치’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!

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

국정원 ‘프락치’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

제보자 양심선인 및 사찰피해자 공개 증언

일시 장소 : 2019. 9. 24. (화) 11:00,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

#### 1. 목적과 취지

- 국정원이 ‘대공수사’를 이유로 ‘프락치’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,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‘공작’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남.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정원의 ‘프락치’ 공작이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고하나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실패와 국정원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.
- 언론보도 이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의 동의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국정원의 불법적 지시와 공작사건에 대해 진술청취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.
- 한편, 이번 공작사건의 사찰 피해자들과 한국진보연대,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정원 ‘프락치’공작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임.
- 이에 내일 오전(11시) 참여연대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국정원 ‘프락치’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함. 내일 기자회견에는

‘프락치’로 활동했던 제보자와 사찰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최초로 공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.

※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는 내일(9/24)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.

## 2. 행사개요

- 제목: 국정원 ‘프락치’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!  
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
- 일시 장소 : 2019. 9. 24. (화) 오전11시,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
- 주최 : 국정원감시네트워크, 국정원‘프락치’공작사건대책위원회
- 순서
  - 대책위 발족 및 사업계획
  - 기자회견문 낭독 - 공동대표들
  - 진상조사결과 발표 -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김인숙 변호사
  - 제보자 양심선언
  - 피해자 진술
  - 질의응답
- 문의 :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-723-5302

## 3.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. 끝